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생명윤리위원회 및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관련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1월중에 공포할 계획이며, 시행규칙은 12월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이식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이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합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장기를 이식받을 자를 선정함.

- 이에 따르면 장기를 이식받을 자는 의학적 응급도, 대기시간, 조직적 합성, 혈액형, 나이, 과거 기증여부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며, 동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고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기증자 발생시 즉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 또한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토록 하여 뇌사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건강박람회(Korea Health Fair 2000)』 2000년 4월에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건강축제인 건강박람회를 내년 4월 7일 '보건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약 9일간)할 계획이다.

- 새로운 천년, 새로운 건강사회를 주제로 하여 금연, 절주, 영양 개선 등 건강생활의 실천주제가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건강증진 전시장(Health Promotion Booth)이 설치되고, 무료검진을 비롯한 연예인 건강홍보사절의 공연 등 청소년을 위한 건강생활체험장과 가족건강마라톤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각종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 건강박람회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와 보건단체 등이 중심이 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며, 이 달 중에 행사개최에 필요한 사전계획을 준비할 실무기획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매년 건강엑스포(National Health Lifestyle Program)를 개최하며, 미국 미네소타주는 매년 미국내 최대규모의 Health Fair를, 캘리포니아주는 Health Fair Expo를, 뉴욕시는 건강 이슈별로 Health Fair를 개최함. 한편 영국은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랭커스터시가 지역단위 Health Fair를 개최하고 있음.

##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8개 소화기내과계 질병 추가

보건복지부는 1999년 9월 1일부터 3차 질병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에 8개 소화기내과계 질병군을 추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소화기내과계 질병군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97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질병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외과계 질병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외과계 질병군과는 성격이 다른 소화기내과계 질환을 시범사업에 추가 적용함으로써 그 과급효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질병군별 분류체계, 모니터링체계, 수가체계 등에 대한 내과계 질환 적용시 적절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질병별(DRG, 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란 1960년대 말부터 미국 예일대학에서 10년간에 걸쳐 개발한 입원환자 분류체계로서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기타진단명,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의 하나의 질병군을 의미함. 행위별 수가제도는 투약, 처치 및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합산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제도인 반면에 질병별 포괄수가제란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라 이미 정해진 정액진료비를 의료행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포괄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진료비 결정방식임.
- 새로 추가되는 질병군은 소화기악성종양, 위장관출혈, 복잡소화성궤양, 단순소화성궤양, 염증성장관질환, 위장관폐색, 식도염·위장관염, 기타 소화기 질환의 소화기내과계 질환 8개 질병군임.
- 현재 실시중인 3차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3차 시범사업기간: 1999년 2월 1일 ~ 2000년 1월 31일
  - 1999년 2월 1일부터 적용중인 질병군: 9개 질병군(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편도선수술, 정상분만, 단순폐렴 및 늑막염)
  - 시범기관수 및 진료비 지급현황: 전국 649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현재 시범사업 진료건은 월평균 건수 36,000건으로 의료보험 월평균(1999년 상반기)대비 10.39%이며, 시범사업 진료비는 월평균 진료비 276억원으로 의료보험 월평균(99 상반기)대비 8.71%를 차지함.
- 1999년 9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시범사업 실시내용
  - 종전 9개 질병군에서 17개 질병군(의료보험 총입원건수의 37.13%)으로 시범적용 질병군 수를 확대하며, 추가대상 8개 질병군은 의료보험 입원건수의 12.13%를 차지(현행 9개 질병군은 25% 차지)함.
  - 시범요양기관수를 1999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649개소에서 798개소로 확대 지정함.
  - 내과계 질병군의 고정비율 적용은 수술 또는 분만환자의 고정비용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단순폐렴 및 늑막염을 포함한 8개 질병군의 고정비용 비율은 현 0%에서 15%로 조정함.

##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 개통: 전염병정보감시센터 동시 개설

국립보건원은 지난 1998년 1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근로 사업으로 추진해온 『전염병 DB구축 및 인터넷 정보시스템개발』사업과 『전국감염병감시정보시스템 제3차사업』을 동시 완료하고, 8월 13일 보건복지부 차관 및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DisWeb)』 개통식 및 전시회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 『전염병 DB구축 및 인터넷 정보시스템개발』사업은 총예산 20억원으로 (주)비트컴퓨터와 한국통신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의 전국 전염병 환자발생 정보와 검사정보 DB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시·군·구 보건소의 지속적 자료 입력을 위해 국내최초로 인터넷 ED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인터넷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동시 개발하였음(<http://dis.mohw.go.kr>).
- 전염병 정보망 홈페이지는 보조감시의료기관 및 학교로부터 전염병의 전산 보고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위한 계절별 유행 전염병정보, 해외전염병 발생 현황 및 여행자 정보, 전문가들을 위한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제공, 전염병문헌정보검색시스템, 전염병·식중독 등 역학조사결과, 각종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등 전염병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가상공간에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신종전염병대책위원회 등을 운영하게 됨.
- 또한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원국간에 O157 및 세균성 이질 환자발생 정보의 교류와 컨설팅을 실시하게 됨.
- 국립보건원은 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산개발회사 및 학계 전문 교수진들과 함께 총 5차례의 전국 시·군·구 보건소 전염병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연인원 4만여 명의 전문직 실직자 고용효과 및 공공근로요원 33명에 대한 전산자격 취득을 지원하였음.
- 한편 1997년 이후 국립보건원이 (주)포스데이타와 함께 추진해온 『전국감염병감시정보시스템 제3차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1998년 8월 국립보건원과 전국 시·도보건과간의 전산망을 개통한 데 이어 국립보건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검역소 - 관련협회를 네트워크로 연계시키게 되어 전염병 분야에

서의 효율적 정보전달 및 공유체계가 구현되었음.

- 국립보건원은 개발 시스템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전산실을 확충, 전염병정보감시센터(CIS; Center for Information & Surveillance)를 개설하고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관리분석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전담토록 할 예정임.
- 국립보건원은 전염병 정보망 개통과 전염병정보감시센터 개설을 통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2~3개월에 걸쳐 집계되던 전염병관련 통계정보를 1999년 10월부터는 온라인 실시간 집계할 수 있게 되었음(1999년 전염병예방법 부분개정시 전산보고 근거 마련 예정).
- 아울러 신속한 전염병 발생정보의 수집으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능력이 강화되었고 과거 5년간의 전염병 DB구축으로 향후 전염병 유행예측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소, 국립보건원 등 관련기관 방역사업체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